



— 제10회 —  
 불조심 여성수필 · 수기  
 현상모집 최우수작



조원채  
 서울·강서구 화곡 4동  
 504-44호6/2)



**일년전** 그날은 우리가  
 결혼한 지 한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아스팔트의 열기가 다가옴을 전  
 해주던 유월칠일. 그동안에도 병  
 앓이로 신부노릇을 제대로 못하  
 던 나는 그날 전화국에 가서 1년  
 뒤에나 나온다는 전화신청도 하  
 고 돌아오는 길엔 예쁘게 핀 백일  
 홍 화분도 끽끔거리며 사들고 들  
 어왔다.

방안엔 엇그제 사다 꽃은 빨간  
 카네이션과 한아름의 밤안개가 상  
 패하고 기분좋은 분위기를 연출  
 해 주었고 가난한 우리방 창외의 삭  
 막함을 보며 '이달말 그이가 보  
 너스 타오면 예쁜 커튼도 달아야  
 지, 곧 더워지니 내가 못해온 냉  
 장고도 들여놓아야지, 돛자리도  
 하나 사야겠구나. 그리고 참조금

전 화원에서 본 그 예쁘고 향기  
 좋은 꽃도 사와야지, 마음은 동실  
 떠다니고 있었다.

아! 배가 고프다. 꿈을 먹느  
 라 점심도 굶고 오후가 되어 버  
 렸다.

웁지 요리책 보고 맛있는 간식  
 만들어 먹어야겠다. 먹음직스럽게  
 칼라사진으로 나와있는 감자고로  
 케를 보고 군침을 삼키며 그것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 직장을 다  
 니며 요리한번 안해보고도 "가서  
 하면 다 하게 돼있어." 믿는것도  
 없이 큰소리만 쳤던 내가 정말로  
 요리책을 보며 그러저럭 음식을  
 만들곤 했었다.

그러나 요리책만 보아선 그 위  
 험한 상식을 모른채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감자를 삶아내고서 불을 줄이고 바로 기름을 냄비에 반이상부어 뚜껑을 덮은채로 올려놓은 다음 뜨거운 감자를 으깨고 야채와 고기 다진것을 넣어 동그랗게 열심히 빚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올려놓은 기름생각이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매캐한 연기가 마구 나는게 아닌가! 얼른 석유풍로 불을 껐지만 어느새 냄비속 기름엔 불이 붙고 말았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공기를 차단해야 될텐데 그대 뚜껑을 다시 덮자. 하지만 뚜껑가장자리로 불길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어찌지 어찌지 다시 뚜껑을 열자” 그런데 아! 그 거대한 불길.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대야로 덮어야 겠다. 아! 이럴수가 남비의 손잡이 때문에 대야가 들뜬 상태에서 불길은 그 큰 대야 밖으로 사정없이 올려 뿜고 있었다.

가슴은 더 큰 방망이가 두드려 대고 있었고 오직 그대야를 들어내고 불길을 원상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대야를 무슨 수로 들어낸단 말인가.

그래도 들어내야 한다. 잠시라도 더 봐 둘순 없다. 저 불길을 그냥 더 봐줬다간 천장으로 불이 붙고 말 것이다.

어리석게도 담요를 덮어 끈다던가 사람을 부른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한채 쿵쾅거리는 가슴을 한손으로 부둥켜 안고 한손에 젖은 행주를 들고 대야의 한쪽 끝을 순간적으로 감싸며 제껴 바닥에 떨어뜨리려 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가.

“평, 하는 순간 불길은 온통 내몸을 감싸고 그순간 난 밖으로 뛰어나와 가파른 계단을 마구 달려 내려가며 머리와 원피스에 붙은 불을 필사적으로 껐다.”

그 무거운 스텐대야가 가냘픈 두손가락에 의해 온전히 맘 먹은대로 들어내 질수 없다는 상식이 일순간 두뇌에서 사라져버린 오직 당황 그것만이 꼭 차있던 머리속이었다.

그 무서운 불길과 함께 지금도 몇도쯤이나 되었던 것인지 모를 그 많은 양의 기름이 남비째 나의 이 가녀린 두 발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지는 힘에 의해 “평” 하며 이내 불길은 온통 내몸을 감싸고 그순간 난 밖으로 뛰어나와 가파른 계단을 마구 달려 내려가며 머리와 원피스 자락에 붙은 불을 필사적으로 마구 쳐서 껐다.

아마도 머리는 키만큼 올라온 불길의 끝에 붙었기 때문에 심하게 불지 않은 것 같았고 의류는 그다지 가연성이 큰 섬유가 아니었던가 보다.

외출에서 돌아왔던 상태여서 벗지 않은 스타킹만이 흔적없이 사라졌고 허벅지에 남은건 스타킹 밴드 뿐이었다.

내려다 본 발등은 이미 하얗게 익어 있었고 내가 이런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마당까지

내려선 순간 주인집에 대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해본것이다.

주인집에서 너무 놀란 표정으로 달려 나왔고 얇은 담뱃으로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주인할머니의 지시대로 부끄러움같은건 잊은채 그자리서 옷을 모두 벗고 반나상태로 주인집에 들어가 누웠다.

택시를 부르는 동안 할머니는 소주를 몇병이나 사다가 마구 부어 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주는 화기를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냉수로 해야된다는 상식을 나조차 모른채 맡기고만 있었다. 알콜이었기 때문에 그순간은 꽤나 시원했었기 때문이다.

택시가 왔고 날 태운 차는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차속에서의 화끈거림 만큼 큰 고통이 또 있으랴. 도무지 어쩔줄을 몰랐다. 미쳐버릴것만 같았다.

화상전문병원으로 가자고 기사분이 제의했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가까운 곳으로 가달라고 했다.

천리길갈던 병원에 도착을 했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이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연락받고 달려오신 한동네 사시는 시누님과 마주보며 통곡을 했다.

수원이 직장인 그이가 오기까지 꽤 시간이 지났나 보다.

입원수속이 끝나고 입원실로 옮겨졌다.

화상 부위는 가장 심한 두다리를 비롯해 얼굴, 목, 두손, 그당시엔 어느 한군데 달한 곳없이모



두 고통스러웠는데 의사선생님은 다른 곳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리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들여다 보곤 하였다.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니 보호자만 따로 만나자는 소리에 난 절망상태가 되어 마구 울었다.

조금지나 들어온 그의 아무 것도 아닌말을 가지고 그랬다는 소리에도 난 믿을수 없다며 울부짚었다. 걸을수도 없는 병신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느낌에... '2도 3도 화상으로 이식수술 까지 해야될것 같다. 몇달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에 하루종일 울기만 하며 보낸 이틀밤을 뒤로하고 좀더 큰 병원으로 가기위해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도 역시 같은 진단이었다.

남편과 난 같은 직장에서의 연애로 결혼하였고 특별한 배려로 계속 연장해 가며 내준 회사의 장기간 휴가로 그이가 날 간호해주었다.

손조차 쓸수 없는 난 스물네시간 누가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그런 상태였고 더우기 안고서 화상치료실로 데려다 줘야 하였기에 그이는 꼭 있어야만 했다.

수원의 친정어머님 힘도 없으시지만 학교다니는 어린 동생들 때문에 와 계실수가 없었다.

지옥같았던 화상치료실. 그곳에서 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스런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오히려 3도 화상인 발등은 감각이 없어 예리한 메스로 익은 살이 떨어지라고 좌우 사선으로 마구 그어대도 아무런 고통이 없었지만 2도 정도인 다리의 고통은 너무도 심했다.

소독약을 묻힌 거즈로 인정사정없이 마구 문질러대는 의사의 손은 악마의 손 그것이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다리에 약물을 듬뿍 적신 몇겹의 두꺼운 거즈를 둘러싸고 붕대로 묶으면 치료가 끝난 것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치료실 행. 어제 감아놓은 붕대를 풀고 물기가 전혀 없이 바싹 말라버린 거즈를 뗄 때의 고통은 더 말할수가 없었다.

다리에 찰싹 붙어있는 거즈를 마구 잡아 뗄땐 온통 살이 다 묻어나는 것만 같았다. 그런 공포의 치료로 인해 하루가 한시간 가듯 빠르게 지나갔다. 침대위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창밖으로 보이는건 회색빛 하늘 뿐이던 그때의 하루가 그리도 빠르게 느껴지던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래도 육체의 고통은 이를 악물고 그 사이로 나오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참을수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만큼은 도저히 참아가지지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결혼한지 달포만에 이런 형벌이 주어지다니 너무도 가혹스러웠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은 그칠줄을 몰랐다.

그러한 나를 지켜보는 남편도 무척 힘들었으리라. 그이를 위해 절대 울지 말아야 하는데...

그이의 헌신적이었던 간호를누가 감히 따라올수 있으리. 그이는 꼼짝도 할수 없던 나의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양치질도 내손으로 하는것만큼이나 잘 해 주었고 휠체어에 앉혀 세면대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감겨주었다. 모두들 감탄을 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인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변기를 들고 간호원실과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출입구를 지나 화장실 다니는 것이었다고 나중에 말했다. 남자는 그이 뿐이었다.

나의 온갖 짜증과 그 모든 것들을 평소와 전혀 다름없는 쾌활함으로 그인 받아 주었다. 지금도 정말로 눈물겨웁다.

그러는 동안 얼굴과 손이 거의 나았고 부서운 다리의 치료도 한 달 가까이 받았을 때 이젠 이식 수술을 해야겠다. 치료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모든 이들의 격려속에 마음을 가다듬고 수술실로 향했다.

아무것도 모른채 몇시간이 지났고 회복실을 나서며 수술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날밤 굉장한 고열로 고생하였고 이삼일 지나니까 허벅지의 살 떴어낸 부분이 피가 작느라 가려워서 견딜수가 없었다. 가려움의 고통또한 아픔이상이었다.

도무지 잠을 잘수가 없는 것이다. 살이 붙을 때 까지 꼼짝하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휠체어 타고 하루 한번씩 가던 화장실조차 갈수 없는 짜증속에 며칠이 지나고 다리의 살이 붙은 상태를 보느라 처음으로 병실에서 봉대를 풀었다.

아! 이런수가 내 다리가 이렇다니. 시커멓고 가늘기가 꼭 이디오피아 기아의 다리 같았다. 충격에 눈물이 마구 흘렀다. 거기다 다 끝났느라 알았던 수술이 아직 덜 끝났단다.

발등의 수술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발등은 좀더 있어야 수술할 수 있었고 1차 수술한 곳도 얼마나 살이 잘 붙느냐 더 두고 봐야 한다. 잘 붙지 않으면 그곳도 또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조금 있으면 퇴원할수 있을거라는 희망이 일시에 산산조각나 버렸다.

앞으로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환자 자신이 아주 잘 먹고 빨리 낫겠다는 신념의 노력에 달렸단다. 그때부터 살이 잘 자라날수 있다는 곰국을 먹기로 했다.

그 무더운 여름 시누님께서 곰국을 달여 놓으시고 그이는 이틀에 한번씩 1시간이상 걸리는 거리를 버스로 날랐다. 평소엔 비위에 맞지않아 못먹던 곰국을 하루에 예닐곱 대접씩 눈감고 마구 마셨다. 그 덕분에 회복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곧 남은 수술도 할수 있겠다며 웬만해서 이렇게 잘 붙기 힘든데 거의 백퍼센트가 다 붙었으니 살성이 참 좋은것 같다는 의사선생님들의 감탄에 처음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어쩔 저렇수가 있을가 싶을 정도로 표정하나 흐트러짐없이 언제나 날 편안하게 해주는 그이를 위해 절대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어도 매일같이 흐르던 눈물을 거둘수가 없었고 이젠 걷는 연습 좀 해 보라는 지시에 처음으로 내 두발로 침대에서 내려와 보았다.

그러나 양쪽에서의 부축도 아랑곳없이 형편없이 가늘어진 다리와 직각으로 꺾이질 않는 발목 때문에 그자리에서 주저 앉고 말았다. 이대로 영 걸을수 없을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었지만 필사의 노력으로 나날이 떼어놓는 발자욱 수가 늘었다. 신기하기만 했고 모두들 축하해 주었다.

그동안 한번도 내 얼굴을 볼기 회가 없었는데 내발로 걸어가 처음으로 거울을 보니 놀랍게도 흔적 하나 없이 나아 있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얼굴까지 흉이 남겨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 그날까지도 난 내몸 성

치 않음에 집생각은 조금도 안했었다.

그날의 불이 걸잡을수 없이 집으로 옮겨 붙었다면... 너무도 아찔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방문앞에 놓여있던 발갈개에 불이 붙은 것을 주인집에서 켜다한다. 내몸하나 이렇게 되고만게 낫지 그 남의 집 다태웠으면 어찌할뻔 했던가.

두번째 수술 결과도 좋았고 비록 다리의 흉터는 영원히 지울수 없는 문신으로 남아있게 되었지만 그외의 몸이 전혀 괜찮고 손목에만 약간의 흉터가 남아있으니 불행중에서도 커다란 다행이 아닐수 없다. 드디어 퇴원하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뛰어오를듯 기쁘던 그날. 54일만에 퇴원 하게 된 것이다. 7월31일.

다시 태어난것 같던 그날의 감격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퇴원길의 가로수녹음이 낮설 정도로 푸르던 것과 숨이 막힐듯 반들거리며 열기를 내뿜던 아스팔트가 너무도 소중한게 느껴지던 기억을... 그후로도 살이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얼마후 T.V를 통해 "요즘 시중의 식용유 불이 붙는다" 라는 방송이 된적이 있었다. 실제로 불이 붙는 화면을 보는 순간 그날의 악몽이 그대로 되살아나 가슴이 얼어붙는듯 했다. 진작에 저런 방송이 있었으면 조심을 했을텐데... 하지만 기름의 불은 담요를 덮어 끈다는 평소의 상식조차 잊었던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기름을 뚜껑덮어서 끓인것도 그렇고, 아뿔튼 그날의 실수는 언제나 내 생활속의 불조심에 대한 커다란 거울이 되어줄 것이다. ■